

광 고

원양산업

제 1165 호
(2024년 1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4년도 신년사 / 5
- 협회,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 참석 / 6
- 한국-FSM 2024어기 입어 협상 / 7
- IUU어업(선원 인권) 예방 및 근절 관련 워크숍 참석/ 8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3년 12월 보고 내용 / 9



이달의 요리

- 동태찌개 / 13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1월 MGO 싱가포르 벙커 가격 전월 대비 상승 / 14

■ 참치어업 동향

- 중서부태평양 11월 참치 어획량 약 14만 톤 / 15

- 중서부태평양 11월 전재량 7만 6,804톤 / 16
-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80달러 / 16
- 동부태평양 2023년 3분기 참치 어획 20% 증가 / 17
- 인도양 참치, EU 2022년 어획량의 7% 차치 / 17
- 중서부태평양 11월 참치 어획량 약 14만 톤 / 18
- 日 냉동 참치류 11월 수입 통계 발표 / 19
- 아시아 가공업체, 홍해 위기로 운임 급등 직면 / 20
- 日, 2023년 눈다랑어 연간 수입 추세 정리 / 21
- 벨기에, 베트남의 3대 참치 수출국에서 제외 / 22
- EU 주요 시장 2023년 3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감소 / 22
- EU 자숙 로인 수요, 3분기에도 감소 / 23
- 스페인 WOFCO, 참치 선망선 2척 인수 / 23
- 日 10월 냉동 가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22엔 / 24
- 日, 10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 25
- 황다랑어 자원 및 평균 무게 감소 / 26
- 몰타, 양식 참다랑어의 중국행 직접 수출 추진 / 27
- 中 선전 참치무역센터, 1월 공식 가동 예정 / 27
- 참치 기업의 젊은 소비자 유치 방법 분석 / 28
- 몰디브, 자체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 출시 예정 / 29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티나 정부, 일렉스 오징어 시즌 개시 / 30
- 日,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수입 의존 지속 / 31

■ 명태어업 동향

- 러, 12월 20일 시점 약 520만 톤 어획 / 32
- 러, 수출 관세 5.5%로 설정 / 32
- 러, 최대 어획량으로 베링해 명태 조업 종료 / 33
- 러시아 트롤 어선, 어획량 세계 신기록 수립 / 34
- 러시아 극동 수역 명태 어획 시작 / 34
- 美 정부, 타국서 가공한 러 수산물도 수입 금지 / 35
- 러, 전자조업일지 전환 / 36
- 美 명태 생산자, 2024년 낙관 / 37
- 오호츠크해 명태 어업, 5년간 MSC 인증 / 38
- 美, 명태 연육 이미지 변화 고민 / 39
- 美, 베링해 포함 해양영토 영유권 주장 확대 / 40
- 日, 쿠릴열도 어업 재개 원해 / 40
- 러시아 2023년 명태 수출 증가 / 41

■ 공치어업 동향

- 日 2023년 공치 어획량 2만 4,433톤 / 42

■ 각국 수산 동향

- 노르웨이 대구 양식업체, 중국 진출 / 43
- 노르웨이, 고등어와 청어 쿼터 할당 / 43
- 러, 생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 제안 / 44
- 러시아 연방보안국 동북극 지부, 어민과 만나 / 44
- 인트라피시誌, 2023년 어업계 주요 기사 선정 / 45
- 모스크바 생선 가공량 5년간 83% 증가 / 46



쉬어가는 난

- 〈바다3〉 - 이도윤 / 47



국내 수산 정보

-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 48
- 12월 명태 국내 동향 / 50
- WCPFC 제20차 총회, 개정된 보존관리조치 합의 / 52
- 갈치-공치업계, 어업용 미끼 공치 수급 협력 / 52
- 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 53
- 대중성 어종 최대 50% 할인 지원 / 53



지난해 베풀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의
회사와 가정에 항상 만복이 가득하여지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 元旦
한국원양산업협회
임직원일동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 2024년도 신년사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는 우리 원양산업 종사자들을 비롯한 모든 수산인의 안전 조업과 우리나라 식량 산업의 지속적인 안정을 기원합니다.

지난해 5월, 3년 4개월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이 선언되었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새롭게 발발하면서 전세계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따른 어려움으로 가득한 상황입니다.

원양업계가 당면한 최대 고민은 해기사 공급 부족 문제입니다. 현재 해기사 연령은 50세 이상이 81%이고 중간 연령층인 30대는 2%에 불과합니다. 직업 가치관 변화로 젊은 연령층의 어선 승선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중간 연령층인 40대의 공동화(空洞化)로 인하여 고급 사관 해기전승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선원 수급 문제로 인한 출항·조업 차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제 경쟁을 위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해양수산부와 원양산업노동조합과 협력을 통하여 해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은 참치, 명태 등 국내에서 어획할 수 없거나, 오징어, 꽁치 등 국내 어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산자원을 100% 해외 연안국 EEZ 및 공해수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 수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입니다. 또한 원양산업은 어선 척수(합작 포함 247척)가 연근해 어선 척수(3만 9,066척)의 0.6%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어류 생산량의 46%(66만 8,000톤, 합작 포함)를 차지하는 주요 식량 산업이기도 합니다.

원양산업은 국제수산기구, 해양 자원 보유 연안국, 비정부기구(NGO)와 함께 국제 해양 질서와 신규범에 신속하게 적응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이에 우리 원양업계는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이용과 친환경적 소비자 가치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국가안보에 주요한 식량 산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식량 공급 위기 속에서 해외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연안국가와의 ODA 사업 지원 등 조업국 간 완전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원양산업은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어장 유지를 비롯한 국가안보에 주요한 식량 산업을 유지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부디 우리나라 원양산업이 국제무대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와 국회, 원양노조 등을 포함한 국가안보 식량 산업 관계자 모두의 각별한 애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장 윤명길

협회,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 인사회 참석

해양수산 인사 및 관련업·단체장 300여 명 한자리



우리 협회는 1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해양수산가족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였다.

신년인사회는 연초에 해양수산업계, 산하기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해양수산분야의 발전을 다짐하고, 새해 인사를 나누는 자리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총연합회, 한국수산업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한 2024년 해양수산가족 인사회에는 신임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최윤희 한국해양수산총연합회 회장,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김종욱 해양경찰

청장, 김종태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 해양수산분야 인사들과 관련업단체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었다. 우리 협회에서는 윤명길 협회장, 신현애 해외협력본부장, 이형균 경영지원본부장, 진호정 해외협력2부 부장이 참석하였다.

강 장관은 “올해는 바다로부터 승천하는 청룡의 해인 만큼,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면서 해수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FSM 2024어기 입어 협상

2024년 조업일수 및 일일 가격, 조업일수 전배조건 등 협의



한국과 마이크로네시아(이하, FSM) 간 2024어기 입어 협상이 2023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콤포에 위치한 FSM 영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양측은 2024어기 주요 입어 조건에 합의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FSM 측은 Peter Garamfel NORMA(해양자원청) 이사회 의장, Eugene Pangelinan NORMA 이사회 컨설턴트, Limanm Helgenberger NORMA 이사 대행, Jean Welles VDS 관리자, Angelina Tretnoff

장관 비서, Alik Jackson FSM 의회 법률자문 등 총 12명이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부장(수석대표), 사조산업 태광호 과장, 신라교역 박정국 부장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는 백상진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2024년 조업일수 및 일일 가격, 조업일수 전배조건에 합의하였고, 입어료, 옴서버비 및 급여 등의 사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IUU어업(선원 인권) 예방 및 근절 관련 워크숍 참석 원양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및 예방 방안 협의

우리 협회는 지난 12월 20일 부산 센텀프리미엄호텔에서 개최된 IUU어업(선원 인권) 예방 및 근절 관련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서 원양어선 인권침해 언급 및 미국 주도로 선원 인권을 IUU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하여 원양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추진 방안 협의를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동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정윤석 사무관 외 2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수산자원공단,

국제옵서버가 참석하였다.

업계에서는 경태, 대해수산, 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쓰리티오션,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티앤에스산업, 참손푸드, 한성기업이 참석하였고,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최은혁 주임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IUU 동향, 원양 외국인 선원 인권 보호 및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 및 협의가 이루어졌고, 아울러 어선원 인권 관련 강의 및 제안 등이 진행되었다.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 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12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

가.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1,500
	3.4~10kg	1,400
	1.8~3.4kg	1,300
눈다랑어	10kg~	1,150
	3.4~10kg	1,150
	1.8~3.4kg	1,150
가다랑어	3.4kg~	1,350
	1.8~3.4kg	1,300
	1.5~1.8kg	1,150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로/톤)	조사일
다카르항	-	656	'23.12.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

가. 해양 인적 자원 양성 지원 필요

- 피지해양안전청은 피지가 해양허브가 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해양산업 전반 걸친 선원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함에 국가 및 국민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피지는 지난 10년간 선박건조, 선박수리, 설계, 운용 등에 대한 해양 전반 기술력을 잃어 국내외 학계 등과 협력하여 이러한 기술을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산업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제공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나. 항구 시설 인프라 및 역량 강화

- 피지항만공사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남태평양의 무역, 해양 관련 녹색관문이 되고 피지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기 위하여 항구 시설 확장 및 발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다. 불법 어업 관리 필요

- 피지해군은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국가가 약 6억 달러의 수익 손실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수산부와 주요 수산 단체와 협력 및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규제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허가 제도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한 조치도 모색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3,000	로안가공용(PAFCO)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175	'24.1.9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관

가. 인도네시아 선박 나포

- 서호주 킴벌리 해안에서 불법어업을 한 인도네시아 선박 3척과 선원 30명을 호주 국경수비대가 체포하였다.
- 호주 국경수비대는 불법어획한 해삼 1톤과 어선 3척, 어로장비를 압수하였다. 또한 30명의 선원을 구금하였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구금된 불법 선원수에서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 호주 국경수비대에 따르면 2022년에서 2023년간 125척의 선박이 불법어업을 하였다고 밝혔다.

나. 해조류 재배 프로젝트 검토

- 인도네시아 해양투자 장관은 해조류 생산은 바다 탄소를 흡수하고 손상된 물고기와 산호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어 탄소 배출과 바다 청소에 관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였다.
-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 산업은 일자리 창출, 중소

기업 장려 외에도 석유/플라스틱 원료의 대체품으로 개발할 수 있음에 적극적인 개발을 명령하였다.

다.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RP/kg)
오징어	중형(1미터)	70,000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RP)	조사일
PERTAMINA	MDF	16,200	'23.11.27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관

가. 수산업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7~1.2톤, 황다랑어 및 눈다랑어를 평균 0.2~0.4톤을 어획하여 전월보다 어획량이 다소 증가하였다.
- 주호놀룰루 이서영 총영사와 정인석 부영사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아메리칸 사모아를 방문하여 사모아 총독 및 정부와 교류 및 교민과 간담회를 통하여 교류를 증진하였다.
- 이후, 한인회와 사모아 선원모지를 참배 헌화하며, 1960년~70년대의 원양어업 및 어선원의 국위선양에 관심을 가지고 업적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 또한, 동원산업의 스타키스트 사모아 참치 통조림공장에 방문하여 공장 현황 및 현지 정부와의 관련 사항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50
눈다랑어	라운드	1,350
가다랑어	라운드	1,35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경유	3.27	'24.1.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조업선 조업 개시

- 한국선박 4척 모두 12월 중순까지 연간 수리를 마치고 조업을 시작하였다.
- 통상 12월 말에서 1월 초까지 오징어 조업 개시 시점이나 어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 시작이 늦어지고 있으며 오징어 가격은 물량 부족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호키	2L	3,050
	L	3,050
	M	2,700
	S	2,5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1,059	'23.12.12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업 동향

- 아르헨티나는 올해 오징어 어장이 개방되자 어업 관련 국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현재 아르헨티나 200마일 근처에서 500~600척의 중국어선이 일렉스 오징어 어획을 준비하고 있어 불법어업을 통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 NGO 오세아나에 따르면 200마일 근처에서 조업하고 있는 25척의 선박이 AIS를 불법으로 비활성화를 반복하였으며 24시간 동안 1,200회 이상 작동을 비활성화하여 해상 안전 규범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불법 조업 선박은 어족자원의 지속가능성 위협 이외에도 선내에서 선원의 노동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아 선원 인권침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국제사회의 통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나.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630	'24.1.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수산물 관리 계획 착수

- 수산양식개발부는 미국 국제개발처의 지원을 받아 어족자원 보호와 장기 보존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산물 관리 계획을 착수하였다.



- 수산물 관리 계획은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장려하고 국가의 식량과 영양 안전 개선에 기여하며 해안 지역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나. 정부 읍서버 실종 후 사체로 발견

- ‘마린 707’ 가다랑어 채낚기 선박의 정부 읍서버가 6주 후 해안에서 사체로 발견되었다.
- 38세의 사무엘 읍서버는 지난 10월 30일 실종되어 머리, 팔, 발가락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정부는 부검을 통한 세부 사항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 2019년에도 정부 읍서버 엠마뉴엘의 실종 사건이 발생한 바 있으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 해양법 및 안보 센터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은 어선원의 규정 준수를 감시하는 관찰자에 대한 안전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말하였다.

다. 참치 조업 금지 준수

- 가나 다랑어 선망조업어선은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가 정한 보존조치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업금지를 준수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참치 공급 부족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 공급은 조업선이 조업 재개 이후인 4월 말에나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가나의 수산물 부족 현상을 가중하여 수입 생선에 대한 의존도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조업 금지 기간에도 선박 운영자는 선원 급여 등 각종 비용과 허가 수수료, 사무실 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함에 조업 금지 기간의 운영 비용은 가나 참치 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수산업 붕괴를 막고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

라.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2,150
	~10kg	1,720
가다랑어	3.4kg~	1,630
	1.8kg~	1,580
	~1.8kg	1,430
	~1.5kg	1,280

마.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양상급유)	MGO	970	‘23.12.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MSC 도입

- 파푸아뉴기니는 지리적인 요인과 참치 외의 수산물 생산이 미미하며 시장에 대한 상식 부족으로 국제시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수산청이 자국 산업의 수출시장 진입 원활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MSC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관 성명 가나다순 〉



동태찌개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 동태 1마리, 알 1컵, 곤이 1컵, 두부 1/3모, 대파 1대, 애호박 1/4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2개, 무 1/3개, 썬갓 1개, 멸치육수 500ml

<양념장>

다진마늘 2T, 간생강 1/3T, 새우젓 1.5T, 국간장 5T, 고춧가루 3T, 고추장 2T, 된장1T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무는 나박하게 썰고, 애호박과 두부는 편 썰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는 어슷 썬다.
- ③ 냄비에 무를 깔고 동태를 넣은 후 멸치육수를 넣어 끓인다.
- ④ 육수가 끓으면 양념장을 넣고 알과 곤이를 넣어 한소끔 끓인다.
- ⑤ 썰어놓은 채소와 두부를 넣고 끓인 후 썬갓을 올려 완성한다.



1월 싱가포르 MGO 가격 전월 대비 상승

1월 9일 기준 814달러

1월 9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77.41달러, WTI 가격은 72.24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77.59달러를 기록하였다.

1월 9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814달러로 12월 8일(735달러)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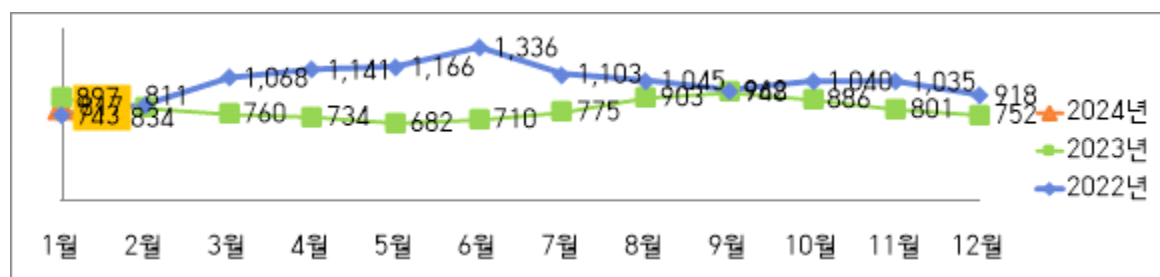
1월 평균(1.2~1.9) 가격은 817달러로 전월 평균(12.1~12.29)인 752 달러 대비 약 9% 상승하였다. 전년 1월(1.1~1.31) 평균보다는 9% 하락하였고, 전전년 1월과 비교하면 10% 상승하였다.

2024년 평균(1.2~1.9) 가격은 817 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2% 상승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1%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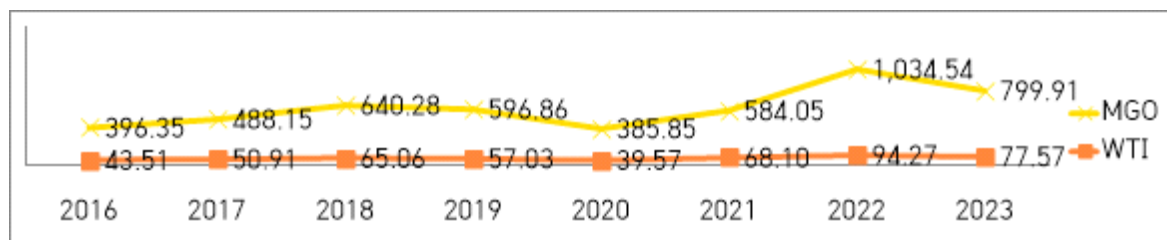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미국, 영국 연합군의 공세를 받으면서 중동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홍해에서 후티가 상선 공격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일 미국을 주도로 한 연합국은 후티에 대해 첫 공습을 가했다. 유가 가격은 공습 이후로 소폭 상승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 여파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달러 이상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컨설팅 회사인 라피단 에너지의 밥 맥넬리 대표는 배럴당 90달러까지 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 리스크의 향방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배럴당 80~90달러 선까지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중서부태평양 11월 참치 어획량 약 14만 톤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중서부태평양(이하, WCPO) 선망 어업은 2023년 11월에도 FAD 금어기 해제의 영향으로 좋은 어획량을 이어나갔다. 키리바시 EEZ 어획량은 7개월 연속으로 전체 어획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11월 어업 노력은 전월 대비 0.7%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다. 선박조업일수제도(VDS)의 2023년 11월 사용량은 2,964일로, 같은 해 10월(2,819일)보다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11월 대비 21% 감소하였다. 그러나 2023년 11월 일일 어획량은 39톤으로, 전년도 11월(30톤) 대비 증가하였다. 가장 많은 어업 노력은 WCPO 동부 수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키리바시 EEZ에서 52%, 동부 공해에서 17%를 차지하였다. 대부분의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에서 조업 노력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류 이동 패턴에 대한 엘니뇨의 영향은 여전히 발생 중이다. 미 해양대기청(이하, NOAA)은 현상이 지속 중임을 확인하였으나, 다가오는 4~6월에 ENSO-중립(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상태)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을 60%로 추산하였다.

2023년 11월 WCPO 총어획량은 14만 1,352톤으로, 10월 대비 11% 감소하였으나 전년도 11월보다는 15% 증가하였다. 키리바시 수역에서는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한 7만 9,157톤이 어획되었고, 공해에서는 2만 2,616톤이 어획되었다.

일일 어획량 43톤의 파푸아뉴기니(PNG)와 투발루는 어획량이 10월 대비 각각 30%, 5% 증가하였으나, 다른 PNA 도서국은 수역 내 어획량이 감소하였다.

11월 전체 일일 평균 어획량은 39톤으로 12% 감소하였다. 가다랑어가 이 중 36톤을 차지하였다. 이는 10월 대비 10% 감소한 수치지만 전년도 11월(일일 30톤)에 비하면 훨씬 많은 수준이다.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전월 대비 약 47% 감소한 2톤을 기록하였다. 9kg 이하의 일일 어획량은 전월(일일 1톤)보다 증가한 1.5톤이다. 대형, 소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각각 16%, 2% 감소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8일자





중서부태평양 11월 전재량 7만 6,804톤

지난 5년간 2번째로 많은 수치

중서부태평양(이하, WCPO)에서 조업하는 선망선단은 11월에도 많은 어획량을 기록하였고,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항구에서도 대량의 전재가 이루어졌다. 가공 허브로 또다시 많은 공급이 예상되면서 참치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PNA 데이터에 따르면 선망선단은 11월에 총 7만 6,804톤의 전재를 기록하였다. 이는 10월 대비 14% 감소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2번째로 많은 월간 전재량이다.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단은 10월에 약 14만 1,000톤을 어획하였다.

대부분 참치는 키리바시 수역에서 어획되었으나, WCPO 동부에서 조업하던 선단이 주요 전재 중심지인 마셜제도 마주로 항구에서 전재하였기 때문에, 키

리바시 항구에서 전재된 어획물은 2만 2,000톤에 그쳤다. 마주로에서는 약 3만톤이 전재되었고, PNG의 마당, 라바울, 라에에서는 1만 9,000톤이 전재되었다. 지난 수년간 전재가 없었던 투발루에서는 954톤이 전재되었다.

11월 전재된 어획물은 곧 태국 방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콕 가공 허브는 10월의 이례적으로 많은 WCPO 어획량으로 인하여 대규모 공급에 직면한 상태이다. 10월 전재된 8만 9,000톤 중 상당수가 방콕에 도착하였고, 제너럴산토스와 만타 등 타 허브에도 도착하였다. 이는 12월 말 톤당 1,480달러를 기록한 가다랑어 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9일자

방콕 가다랑어 가격, 톤당 1,480달러

11월 말 대비 약 5% 하락

방콕 가다랑어 가격이 어획물 공급 과잉으로 인하여 하락세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말 거래는 둔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방콕 가다랑어 계약은 톤당 1,480달러에 체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톤당 1,550달러였던 11월 말 대비 약 5% 하락한 수치이다. 심지어 일부 거래는 더 낮은 가격에 체결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아직 방콕 항구 병목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운반선이 어획물을 양륙했고 더 많은 운송선이 태국 항구로 향하는 중이다. 이들의 예상되는 공급은 가격에 더 큰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말연시를 맞아 조업이 감소하면서 거래가 소강상태를 맞이하고 있다. 가다랑어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공업체의 수요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20일자



동부태평양 2023년 3분기 참치 어획 20% 증가 총 18만 5,818톤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부태평양의 3분기 참치 어획량은 18만 5,818톤이다. 이는 2022년 3분기 어획량(7만 3,117톤) 대비 20% 증가한 수치이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9만 7,523톤과 7만 1,415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 3% 증가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동시에, 눈다랑어 어획량 또한 17% 증가한 6,778톤을 기록하며 증가세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IATTC 데이터는 이러한 증가 속에서도 일부 대조되는 추세를 보였다. 줄삼치(bonito)와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은 감소하였는데, 특히 줄삼치 어획량은 2022년 3분기 2,733톤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3분기에는 1마리도 어획되지 않았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2022년 3분기 1만 5,655톤을 기록하였으나, 2023년 3분기에는 605톤만이 어획되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동안 에콰도르와 멕시코의 어획량은 각각 6만 8,623톤과 4만 482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37%, 22%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13%, 4% 증가한 수치이다.

파나마의 2023년 3분기 어획량은 1만 9,161톤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반면 베네수엘라의 어획량은 7,787톤으로 8% 감소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2월 28일자

인도양 참치, EU 2022년 어획량의 7% 차지 EU 2022년 어획량 총 340만 톤

Eurostat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적 선단의 어획량은 34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 중 인도양에서 어획한 참치가 전체의 약 7%를 차지하였다.

서인도양의 전체 어획량은 23만 8,000톤이며, 이 중 96%에 해당하는 22만 8,480톤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이다. 이 중 59%는 가다랑어, 30%는 황다랑어, 9%는 눈다랑어였다. 스페인 선망선단이 전체의 2/3를 어획하였고, 프랑스 선단이 나머지 1/3을 어획하였다.

북아프리카 연안의 대서양에서는 EU 전체 어획

량의 약 7%가 어획되었다. 여기에는 가다랑어 4만 460톤과 황다랑어 2만 8,560톤이 포함되어 있다. 스페인 선단은 해당 수역 전체 어획량의 1/3 이상을 어획하였다. 보다 남쪽의 남아프리카 연안에서는 3만 2,640톤의 가다랑어와 1만 8,360톤의 황다랑어가 어획되었다.

스페인인 전체 어획량의 22%를 차지하며 EU 최대의 어업 국가임을 증명하였다. 프랑스와 덴마크가 그 뒤를 이었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20일자



중서부태평양 11월 참치 어획량 약 14만 톤

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 11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장 제품 수입량 305톤(전년 동월 대비 15% 증가), 수입액 5억 4,800만 엔(17%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2,734톤(22% 감소), 수입액 118억 8,500만 엔(30% 감소), 가공품 수입량 3,295톤(12% 감소), 수입액 28억 5,200만 엔(9% 감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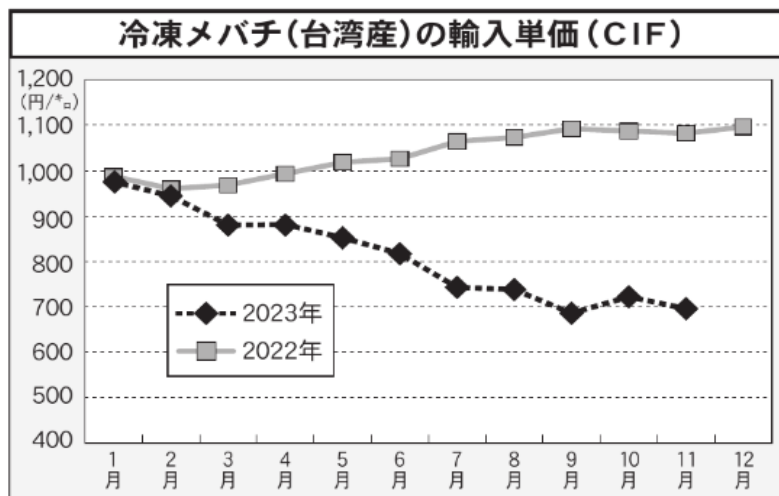
냉동 눈다랑어의 수입 단가는 다시 하락하였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kg당 단가는 708엔(전년 동월 대비 34% 하락)으로, 10월 가격인 kg당 722엔보다 하락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단가는 kg당 696엔(36% 하락)이다.

냉동 저장고의 공간 부족 문제가 차츰 해소되고 있

으며, 12월 이후는 입항이 끝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약간의 시차가 있어도 단가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새해 전후 추위로 인하여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12월부터 지중해 인근 국가의 양식 냉동 참다랑어 필렛의 입하가 이어지고 있다. 3월 후반부터 운반선의 입항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시점에서 초저온 냉동고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는가에 따라 가격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월 12일자



(사진: 대만산 냉동 가다랑어 일본 수입 단가 그래프)



日 냉동 참치류 11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수입량 243톤

〈 2023년 11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날개 다랑 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27	7	29	14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261	552	3,543	587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1	-	-	75	230
	기타	105	42	3	-	31	125	253	447	403	581	611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735	962	4,227	1,441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214	305	164	426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513	163	252	464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941	1,138	1,009	1,097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	-	-	-
	인니	26	94	164	67	17	-	-	25	-	-	3
	미국	-	-	-	-	-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103	133	12	69	119
	피지	16	12	28	-	18	4	-	-	75	-	10
	카리바시	4	2	13	3	-	-	50	25	-	42	6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50	50	-	-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814	1,196	497	256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2,714	2,940	2,034	2,382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175	257	109	243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1,097	607	544	608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2,707	2,600	2,796	2,151
	필리핀	-	-	-	-	-	-	-	-	-	-	-
	인니	1	30	8	8	7	-	-	-	-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645	470	265	101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62	306	107	160	201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66	54	45	30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4,996	4,095	3,918	3,335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32	-	-	-	-	-	-	102	-	790
	대만	6	10	5	-	-	-	-	-	72	226	188
	호주	-	-	-	-	-	20	717	1,561	5,041	115	-
	소계	-	-	-	-	-	-	-	-	5,215	342	978

* 출처: 일간수산업경제신문, 2023년 1월 12일자



아시아 가공업체, 홍해 위기로 운임 급등 직면

EU 참치 공급국 무역에 영향 예상

후티 무장세력의 선박 공격으로 홍해 위기가 지속되면서 운임이 대폭 상승하면서, 세계 참치업체가 이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후티 반군의 공격은 수에즈 운하를 통하여 지중해를 연결하는 컨테이너 운송에 영향을 미쳤다. 해당 항로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 중 하나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주요 비즈니스 중심지를 EU와 연결하는 최단 경로이다. 이번 사태는 참치 통조림과 냉동 자숙 로인을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 세이셸 등 동아프리카 국가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모리셔스 정부는 지난 12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머스크(Maersk)와 하파-로이드(Hapag-Loyd)와 같은 주요 선사들은 지난주부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선박들의 항로를 변경하고 있다. MSC, COSCO, CMA CGM 등의 선사들은 훨씬 긴 항로인 희망봉을 통하여 목적지로 향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왕복 10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수백 척의 컨테이너선이 7~20일의 항해가 추가로 필요한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온라인 화물 예약 플랫폼 Freightos의 리서치 책

임자인 Juda Levine에 따르면, 현재 아시아-북유럽 및 아시아-지중해(스페인 포함)의 운임은 각각 40피트 컨테이너 1대당 4,042 달러, 5,175 달러이다. Levine은 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상하이-로테르담 운임은 2,058 달러, 상하이-바르셀로나 운임은 2,075 달러라고 덧붙였다.

Levine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아시아-유럽 및 아시아-지중해 운임은 각각 282%, 278% 상승하였다. 아시아 가공업체들이 10~11월에 스페인, 포르투갈 및 기타 EU 시장으로 수출하였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중국산 자숙로인 무역(자율관세화당 제도의 영향을 받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동부 연안에 도착하는 화물의 30%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기 때문에, 홍해 분쟁은 미국 시장행 무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에 따르면 물류 전문가들은 중국 및 타 아시아 국가로부터 출발한 화물 중 일부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연안을 통하여 우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월 5일자



日, 2023년 눈다랑어 연간 수입 추세 정리

재고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 악순환 지속돼

횡감용 참치 가격 추세가 지난 1년 동안 급변하였다. 소비량이 많은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평균 단가는 kg당 1,078엔이었던 2022년 10월 정점을 기록한 후, 2023년 9월 697엔까지 급락하였다. 가격 하락은 예상되었으나, 하락폭은 예상 이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고가 재고의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도매업체 및 가공업체 등은 대혼란을 빚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소비 감소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전년도에 가격을 대형 소매점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횡감용 참치의 점포 내 면적이 대폭 축소되었다. 횡감용 참치를 보관하는 초저온 냉동고의 재고 과잉 상황이 발생하면서 100일 이상을 대기하

는 선박도 나타났다. 여기에 유럽, 미국, 중국에서 발생한 경기 침체가 더해져 참치 소비가 부진하면서 엔저가 계속되는 와중에 참치가 일본으로 집중되는 공급 과잉에 빠졌다.

선박 대기 상황의 해소 조짐이 보이지 않고, 수요를 상회하는 대량의 시장 방출이 가격을 더욱 낮추었다. 그러나 2023년 여름부터 냉동고의 상황이 개선되었고, 연말 입선 감소도 있어 가격이 비로소 반등하였다.

2024년은 대형 소매점에서의 매출 개선이 관건으로 전망된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월 1일자



(사진: 2017~2023년 일본 눈다랑어 수입 추세 /
적색 선: 인도네시아산 선어 단가 / 청색 선: 대만산 냉동 단가 /
적색 바: 선어 수입량 / 녹색 바: 냉동 수입량)



벨기에, 베트남의 3대 참치 수출국에서 제외 구매력 감소로 저렴한 통조림 수요 증가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에 따르면, 벨기에는 2021년 대비 6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2년 베트남의 대 EU 참치 수입 3위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2023년 벨기에로의 참치 수출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벨기에는 더 이상 베트남의 대 EU 참치 수입 3대 시장이 아니다.

베트남 세관의 통계에 따르면 벨기에로의 참치 수출은 올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3년 첫 10개월 동안 벨기에로의 참치 수출은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의 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인 냉동 참치 로인 수출은 전년 대비 55% 급감하였다. 반면 가공 참치 및 통조림 참치 수출은 7% 증가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에콰도르, 필리핀,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벨기에 시장에 참치를 공급하는 비유럽연합 국가 중 네 번째로 큰 참치 공급국이다. 2023년에 벨기에는 에콰도르와 베트남으로부터의 참치 수입을 줄이는 대신 필리핀과 코트디부아르로부터의 참치 수입을 늘렸다.

유로스탯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첫 8개월 동안 벨기에의 참치 통조림 수입은 13%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냉동 참치 수입은 49% 감소하였다.

코로나19의 확산과 구매력 감소는 벨기에 사람들의 소비 습관을 변화시켰다.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식당을 찾는 빈도가 줄고 패스트푸드점을 찾는 빈도가 늘어났다. 또한 구매력 감소로 인하여 저렴한 참치 통조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3년 12월 27일자

EU 주요 시장 2023년 3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 감소 총수입량 37만 6,830톤...4% 감소

2023년 1~3분기 동안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4% 감소한 37만 6,830톤을 기록하였다. 수입 단가는 톤당 5,492유로로 8% 상승하였다.

스페인인 소비자 수요 감소로 인하여 비교적 높은 가격에 10% 감소한 물량을 수입하였다. EU가 EU 외 국가로부터 수입한 참치 통조림 물량은 17% 감소한 3만 3,926톤이다. Princes Tuna가 위치한 모리셔스만이 더 많은(1,933톤 증가) 양인 4,436톤을 EU에 수출하였다. EU의 최대 참

치 통조림 공급국인 에콰도르의 수출량은 17% 감소한 3만 3,926톤을 기록하였다.

포르투갈로부터 수입된 참치 통조림의 양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9,497톤이며, 수입 단가는 8% 상승한 톤당 6,291유로이다.

프랑스가 EU 외부로부터 수입한 참치 통조림 물량은 15% 증가한 6,403톤이며, 단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톤당 487유로 상승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1월 4일자



EU 자숙 로인 수요, 3분기에도 감소

1~3분기 동안 13만 7,904톤 수입

2023년 1~3분기 동안 EU는 13만 7,904톤의 참치 자숙 로인을 수입하였다. 이는 2022년 대비 8% 감소한 수치이며, 지난 5년 중에서 2번째로 저조한 수준이다. 톤당 단가는 5,679유로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22년 대비 421유로 상승한 수준이다.

3대 주요 공급국인 에콰도르, 중국, 파푸아뉴기니(PNG)의 EU행 수출량은 모두 15% 감소하였다. 중국 가공업자들은 EU 무관세 쿼터를 소진하기 위하여 1분기에 대부분 로인을 수출한다. 이들은 3분기 동안 EU에 1,578톤을 수출하였다. 반면 에콰도르는 3분기 동안 1만 773톤을 수출하였다. PNG는 1~6월 동안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3

분기 수출량은 약 2,800톤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Bolton 그룹이 소유하고 Rio Mare 브랜드가 생산하는 Soltuna 공장이 위치), 모리셔스, 엘살바도르(스페인 Calvo 공장) 등 일부 비EU 국가의 EU행 수출량만이 증가하였다.

스페인 가공업체의 1~3분기 EU 국가행 수출량은 12% 감소한 7만 8,468톤이다. 수출 감소 원인은 통조림 수요 감소와 단가 상승이었다. 올해 스페인산 통조림의 EU 국가 수출 단가는 톤당 5,395유로로 2022년 대비 406유로 상승하였다. 2021년 단가와 비교하면 1,389유로 상승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19일자

스페인 WOFCO, 참치 선망선 2척 인수

동부태평양 조업 예정

스페인 최대 참치어업 그룹 중 하나인 WOFCO가 프랑스 어업회사 Sapmer로부터 선망선 2척을 인수하였다. 모리셔스 국적으로 인도양에서 조업했던 Belle Rive호와 Belle Isle호는 이제 파나마 국적으로 동부태평양에서 조업할 예정이다.

WOFCO는 에콰도르에 본사를 둔 Eurofish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작년 10월 Sapmer의 선망선 'Manapany'를 인수하였다. 해당 선박은 Ria De Aldan호로 이름이 변경되었고, 국적은 파나마로 변경되었다. 해당 선박은 선단 운영을 목적

으로 설립된 WOFCO의 자회사인 Aldan Pacific이 관리한다.

Belle Rive는 에콰도르 만타로 향하고 있으며, Belle Isle은 재정비를 위하여 Nodosa 조선소로 향하는 중이라고 스페인 미디어들이 보도하였다.

Belle Rive호와 Belle Isle호는 Piriou사가 베트남 조선소에서 10년 전 건조한 선박으로 길이 89m, 폭 14.5m이며, 톤수는 2,667톤이다.

* 출처: Atuna, 2024년 1월 4일자



日 10월 냉동 가다랑어 수입 단가, kg당 722 엔 전월 대비 상승...올해 들어 전월 대비 첫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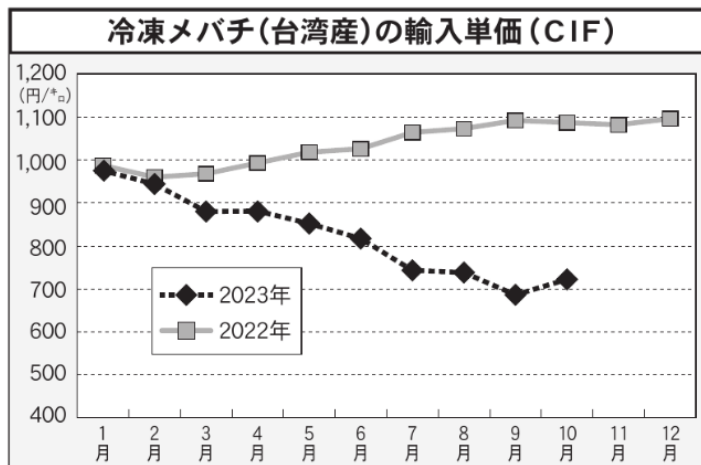
일본 재무성 통계에 따르면, 참치류의 10월 수입 실적은 선어·냉동 제품 수입량 347톤(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 수입액 7억 3,300만 엔(44%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3,998톤(15% 감소), 수입액 101억 5,200만 엔(37% 감소), 가공품 수입량 3,924톤(2% 감소), 수입액 35억 1,700만 엔(6% 증가)을 기록하였다.

1월부터 계속된 냉동 눈다랑어 단가 하락세가 결국 멈췄다. 일본의 10월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평균 수입 단가는 kg당 722 엔(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으로, 9월 가격인 kg당 697 엔 대비 상승하여 다시 700 엔 대를 회복하였다. 수량이 가장 많은 대만산의 단가 또한 kg당 722 엔으로, 9월 가격인 686 엔 대비 상승하였다.

연말 판매 경쟁으로 인하여 재고 물량 이동이 발생했다는 점에 대하여, 작년 12월 kg당 1,096 엔까지 상승했던 대만산의 단가가 400 엔 이상 하락했다는 점으로 인하여 소매 판매점의 기초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 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회전초밥 매장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눈다랑어를 메뉴에 사용 중이고, 인바운드(일본 방문 해외 관광객) 소비 또한 증가한다는 점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단가 하락의 주원인이었던 냉동 저장고 공간 부족 문제 또한 개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냉동고의 공간이 나오기까지 대기 중이던 운반선의 대기 기간도 단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2월 7일자





日, 10월 냉동참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냉동 눈다랑어 109톤 수입

〈 2023년 10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날개 다랑 어	한국	-	96	99	217	155	244	73	27	7	29
	대만	27	4	281	473	437	21	492	261	552	3,543
	바누아투	-	1	131	198	353	-	1	-	-	75
	기타	105	42	3	-	31	125	253	447	403	581
	소계	133	144	396	888	975	391	818	735	962	4,227
황다 랑어	한국	173	217	262	92	58	505	329	214	305	164
	중국	54	338	265	304	177	537	583	513	163	252
	대만	1,295	1,668	1,245	1,793	1,865	1,240	655	941	1,138	1,009
	필리핀	987	245	74	122	121	-	-	-	-	-
	인니	26	94	164	67	17	-	-	25	-	-
	미국	-	-	-	-	-	-	-	-	-	-
	바누아투	56	168	400	251	101	127	103	133	12	69
	피지	16	12	28	-	18	4	-	-	75	-
	키리바시	4	2	13	3	-	-	50	25	-	42
	마셜제도	180	1	197	-	267	124	-	50	50	-
	기타	1,662	692	3,465	1,106	1,975	1,781	1,253	814	1,196	497
	소계	4,453	3,437	11,209	3,738	4,598	4,317	2,973	2,714	2,940	2,034
눈다 랑어	한국	84	136	126	513	112	559	275	175	257	109
	중국	136	373	949	558	479	1,115	977	1,097	607	544
	대만	1,717	1,538	2,639	2,852	2,757	2,284	1,410	2,707	2,600	2,796
	필리핀	-	-	-	-	-	-	-	-	-	-
	인니	1	30	8	8	7	-	-	-	-	-
	세이셸	562	280	137	364	368	686	298	645	470	265
	바누아투	41	309	484	613	232	82	62	306	107	160
	기타	36	82	40	117	52	151	226	66	54	45
	소계	2,578	2,748	4,385	5,026	4,007	4,918	3,247	4,996	4,095	3,918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132	-	-	-	-	-	-	102	-
	대만	6	10	5	-	-	-	-	-	72	226
	호주	-	-	-	-	-	20	717	1,561	5,041	115
	소계	-	-	-	-	-	-	-	-	5,215	342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3년 12월 7일자



황다랑어 자원 및 평균 무게 감소

지속가능 어획을 위해 2020년 어획 수준의 30% 감소 필요

씨 어라운드 어스(Sea Around Us)가 실시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황다랑어는 특히 인도양에서 남획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국제 연구팀에 따르면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가 관리하는 4개 황다랑어 개체군의 무게가 평균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황다랑어 개체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인도양 황다랑어의 생물학적 자원량이 지난 70년 동안 70% 감소하였다."라고 에코워치(EcoWatch)는 보도하였다.

이번 연구는 '생물학적 자원량이 관리 개입으로 안정화 추세인 서태평양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역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RFMO의 바이오매스 계산을 사용하여 산업적 이용이 시작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황다랑어 개체수의 연간 변화를 추정하였다.

"황다랑어 어업은 매년 세계 경제에 16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하는 것 외에도 해양 생태계의 기능, 생산성 및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최상

위 포식자이다."라고 본연구의 연구진은 말한다. "현재의 관리 방식이 적용되지 못하면 개체군 붕괴의 위험이 크다. 전체 어획 능력을 줄이고, 남획된 개체군을 재건하고, 이러한 어업이 상어와 같은 다른 종에 미치는 부수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엄격한 관리 제약을 시행해야 한다."

이 연구는 관리 기관에 "효과적인 어획량 제한 시행, 어획 능력 감소 및 MSY 제한 시행과 같은 보다 엄격한 관리 조치"를 사용하여 "정보의 신뢰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다. 인도양에서 남획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서양과 서태평양 및 동태평양에서 황다랑어가 남획되고 있지 않다는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본 연구의 수석 연구원은 "인도양에서는 황다랑어 개체 수 감소를 멈추고 반전시키기 위해 2020년 수준에서 30%의 어획량 감소가 시급하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Nation of Change, 2024년 1월 9일자





몰타, 양식 참다랑어의 중국행 직접 수출 추진

몰타의 일본 시장 의존 탈피 의도

지중해산 양식 참다랑어의 주요 생산국인 몰타가 최근 중국과 참다랑어 수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다. 본래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을 경유하여 참다랑어를 수입하였으나, 향후 직접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생겼다. 몰타 정부가 지난 11월 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안톤 레팔로(Anton Refalo) 몰타 농수축산부 장관은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억제함으로써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안 보르그 몰타 외무무역장관은 최근 정부 대표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협정서에 서명하였다. 장관은 몰타가 이미 한국이나 일본에 참다랑어를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상업적 전략에 기초한 협정임을 강조하였다. 레팔로 장관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거대 시장인 중국과의 무역 구체화를 환영하였다.

몰타는 최근 한국이나 중국 등 일본 외 시장 개척에

힘써 왔다. 일본 현지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시장은 시장 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몰타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레팔로 장관은 자국 의회에서 일본이 중국에 참다랑어를 되팔아 이익을 내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몰타가 일본에 자국 양식 참다랑어의 약 90%를 수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직접 수출하겠다는 몰타의 의도가 나타난다.

다만, 중국의 수요는 특정 부위나 가공 제품에 한정되기 때문에, 토로 제품 및 대형 사이즈를 선호하는 중국에서 아카미나 뱃살 등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며, 중국은 초저온 물류망도 한정적이라고 상사 관계자는 전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2월 27일자

中 선전 참치무역센터, 1월 공식 가동 예정

中 수산물 글로벌 무역 허브 목표

중국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시의 국제 참치 무역센터가 이번 달 공식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선전 특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무역 플랫폼은 2023년 11월 시작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 경매 및 상장 서비스는 참치, 명태, 대구 및 기타 고부가가치 수산물을 취급하는 자국 어업회사 및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전은 2023년 5월 도시의 수산물 부문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참치 센터를 개장하였다. 함께 개장된 온라인 시스템은 5월 선전 수산 박람회 기간 동안 첫 번째 거래 세션을 개최하였다.

보고서는 지금까지 이 플랫폼이 수많은 중국 어업 기업, 수산물 무역 회사 및 유통업체로부터 관심을 끌었다고 전하였다.

* 출처: Atuna, 2023년 11월 23일자



참치 기업의 젊은 소비자 유치 방법 분석

영양가 있고 편리하며 맛있는 이미지 활용 레시피 개발 필요

전 세계 참치 업계는 참치가 영양가 있고 맛이 좋으며 먹기 편한 훌륭한 식품인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치를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구식 식품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너무 비린 맛이 난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구매자들은 참치가 지속 가능한지 걱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반전하려면, 대상층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혁신적인 마케팅과 패키징, 소셜 미디어의 힘 활용, 세계 각국의 맛을 더하는 것이 이러한 대상층을 끌어들이는 방법일 수 있다.

40년 동안 한국 시장을 선도해 온 동원이 어떻게 젊은 고객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공식을 터득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에 능숙한 사람 중 하나이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93%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며, 주요 플랫폼은 Facebook, Instagram, YouTube이다. 또한 한국 팝(K-pop) 스타에 관한 관심이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참치 통조림 브랜드 동원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65,000명이 넘는다. 지난 8월에는 매콤한 참치림과 특제 소스로 맛을 낸 참치 통조림 신제품 2종을 출시하였다. 이 플랫폼에서 '참치림을 넣은 고단백 살코기 참치'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바로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유명 걸그룹 '아이즈원'의 안유진 씨가 홍보 영상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지난 4~5년 동안 참치 통조림을 유행에 맞고 건강한 식품으로 차별화하고 대중문화와 연계하는 등 Z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국 연예인과 함께 노래와 영상을 제작해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현재 18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의 교육용 펭귄 마스코트 펭수를 영입하였다. 펭수는 20대를 비롯한 젊은층에 큰 인기를 얻으며 동원 제품을 알리고 있다. 이 캐릭터는 한국의 유명 젊은 가수나 셀럽과 함께 출연하여 제품을 홍보한다.

동원은 소비자들이 소장하고 싶어 하는 기념일이나 영화, 유명 글로벌 이벤트 등을 기념하는 한정판 통조림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데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미니언즈' 개봉에 맞춰 '미니언즈 동원참치 컬렉션'을 출시하였다. 또한, 공상과학 영화 ET의 개봉 40주년을 기념하여 '동원참치 ET40 기념 에디션'을 출시하기도 했다. 두 한정판 모두 국내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미국 범블비는 유명인과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 홀리데이 시즌을 활용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매력적인 즉석식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홀리데이 시즌을 앞두고 미국 배우이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크리스티 칼슨 로마노와 파트너십을 맺고 'Eat BEEfore You Eat'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녀는 바로 먹을 수 있는 파우치, 스낵 온 더 런 키트, 쿼 캐치볼을 메인 식사 전 건강 간식으로 홍보하고 있다. 범블비의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는 "그녀는 참치가 저렴하고 영양가 있으며 편리하고 맛있는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젊은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범블비는 참치 애호가들을 위한 달력을 처음 선보였으며, 구글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2023년 강림절 달력'에 대한 검색이 급증하였다. 이 회사는 일반적으로 연말연시에는 매출이 부진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가 음식 트렌드에 미치는 힘과 영향력은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과 틱톡과 같은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레시피를 공유하고, 아마추어 요리사가 자신이 만든 요리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진정한 슈퍼스타로 거듭나는 등 식품 산업의 원동력이 되었다. Instagram에서만 #food 해시태그의 게시물이 5

억 1,600만 개, #foodblogger 해시태그의 게시물이 8,670만 개에 달한다. 특정 요리에 집중하는 인플루언서는 상당한 조회수를 기록한다. 이탈리아, 인도, 일본, 한국, 중국 요리가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가장 인기가 많았다. 참치 회사는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세계 각국의 맛을 일상생활에 도입할 방법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해야 한다.

존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러한 기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브랜드의 훌륭한 예이다. 이 브랜드는 무려 50개의 참치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카레, 순한 인도 카레, 데리야키, 타이 레드 카레, 불타는 할라페뇨 등 23가지의 참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15일자

몰디브, 자체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 출시 예정

새로운 가공 공장 및 프리미엄 제품 생산 필요

새로운 국영 기업이 몰디브의 프리미엄 참치 브랜드를 설립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으로 어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12월 10일 전국 어부의 날에 무이주 대통령은 정부가 수산물의 국제적 홍보를 소홀히 해왔으며 이제는 수출과 수입을 늘려야 할 때라고 말하였다. 지난 일요일, 무이주 정부는 몰디브의 수산물을 마케팅하고 홍보하기 위해 몰디브 수산 및 해양 자원 마케팅 및 홍보 공사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몰디브 수산 진흥 위원회를 대체한다.

새로 설립된 공사는 내년도 예산으로 3,700만 몰디브달러(240만 달러)를 배정받았다. 이 기관의 첫 번째 임무는 국가 참치 제품 전용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국제 시장에서 홍보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내 연승어업에서 잡히는 가다랑어의

65%가 냉동 라운드 형태로 외국 가공업체에 수출되는데, 외국 가공업체는 어민들에게 낮은 가격을 지불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생산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말하였다.

현지 가공 시설의 생산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며 잉여분은 방콕으로 운송되어 태국 통조림 제조업체에 판매된다. 태국 통조림 업체들은 몰디브인들이 자신들에게 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낮은 가격을 지급한다. 이에 새로운 가공 공장, 저온 저장고, 아이싱 공장에 대한 계획이 진행 중이다.

몰디브 대통령은 이전에 황다랑어 최저 가격을 톤당 20,000마르크(1,297달러)로 보장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이미 수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어업인 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 출처: Atuna, 2023년 12월 19일자



아르헨티나 정부, 일렉스 오징어 시즌 개시

지속적인 어획을 위해 생태 자원 연구 결과 반영

아르헨티나 연방수산위원회는 국립수산연구소(이하, INIDEP)의 과학 보고서에 근거하여 49도선 이남에서 일렉스 오징어 조업 시즌을 공식적으로 개시하였다. INIDEP 보고서는 최근 몇 년간 49도선 이남의 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여름 산란기 자원을 활용할 기회를 예고하는 보고서이다.

INIDEP 보고서는 오징어의 수명주기에 맞춰 조업 시작일을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입장은 북위 44도선 이남의 1월 10일에 조업 시즌을 시작하자는 CAIPA와 CEPA의 요청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월 2일부터 북위 49도선부터 52도선 사이의 조업 시즌이 시작되었다. 1월 7일부터 최소 3일간 북

위 49도선 이남에서 조업한 선박은 1월 12일부터 북위 44도선 이남에서 조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나머지 선박은 1월 20일까지 조업을 보류해야 한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12월 말부터 이 지역에서 조업 중인 선박들은 어획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선박 중 다수는 아르헨티나 국적이며 아시아 기업과의 합작 투자로 조업하는 경우도 많다. 필요한 검사가 완료되면 추가로 30척의 오징어조업선이 조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시즌의 성공적인 어획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bnn, 2024년 1월 8일자





日,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수입 의존 지속

2023년 1~10월 수입량 약 7만 5,800톤

일본의 자국산 살오징어류 어획량이 심각한 어획 부진을 기록하면서, 2023년에도 냉동 오징어 수입 수요는 여전히 견고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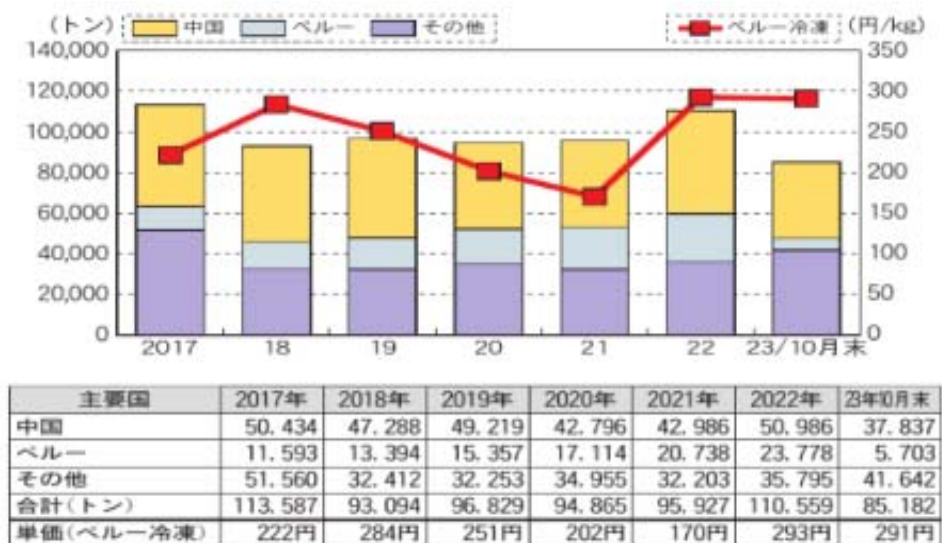
일본 무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0월 살오징어, 일렉스오징어, 대왕오징어 등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7만 5,800톤이다.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으로, 화살오징어와 빨강오징어 등을 더하면 8만 5,000톤 이상이다.

홋카이도의 오징어 가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자국산의 어획 부진으로 가격이 높아져, 가공 원료 대체재로 수입산 오징어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었다. 게다가 2023년 10월에는 이례적으로 오징어 수입 쿼터가 연내 2번째로 추가 발급되면서(1만 5,000톤), 일본 국내 수요의 증가를 가늠케 하였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 회복과 엔저에 힘입어, 2023년 1~10월의 페루산 대왕오징어 수입 평균 단가는 전년도와 비슷한 kg당 290엔대를 기록하였다. 새해에도 수입 원료에 의존하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남미 쪽의 대왕오징어와 일렉스오징어 어획 동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1월 1일자



(사진: 2017~2023년 일본 냉동오징어류 연간 수입 추세,
적색 선: 페루산 냉동 단가 / 황색 바: 중국산 수입량
/ 하늘색 바: 페루산 수입량 / 보라색 바: 기타 수입량)



러, 12월 20일 시점 약 520만 톤 어획

명태 186만 톤 어획

12월 20일까지 러시아는 거의 520만 톤을 어획하였다.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에 따르면 러시아 전체 해양생물자원 생산량은 518만 톤을 초과하여 지난해보다 9.3% 더 많이 어획하였다.

극동 수역의 어획량은 14.7% 증가한 391만 톤을 어획하였다. 명태는 8,900톤이 증가한 186만 톤을 어획하였다. 청어 어획량은 거의 38만 톤, 가자미는 7만 4,700톤, 대구는 거의 11만 1천 톤이었다. 태평양 연어 생산량은 60만 9천 톤으로 2021년 수준보다 13% 증가하였다.

12월 20일 현재 연해주의 수산물 보관 창고의 이용량은 49%이다. 어류 터미널에는 5만 5,600톤의 신선 냉동 수산물이 있다.

북부 수역에서 어부들은 대구 26만 9천 톤, 해덕

7만 8천 톤, 열빙어 2만 3천 톤을 포함하여 거의 46만 2천 톤을 어획하였다.

서부 수역의 어획량은 거의 7만 7천 톤을 어획하였다. 유럽 청어 어획량은 3만 9,300톤, 발트해 청어 2만 4,800톤이었다.

아조프-흑해 수역에서는 멸치 1만 2,200톤과 유럽 청어 1만 4,800톤을 포함하여 4만 700톤 이상이 어획되었는데, 이는 2022년 수준보다 4,800톤이 더 많은 양이다.

볼가-카스피 수역에서는 카스피해 청어를 3만 톤을 어획하는 등 총 8만 6,800톤을 어획하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협약 수역 및 공해에서 러시아 조업선은 54만 9,500톤을 어획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3년 12월 20일자

러, 수출 관세 5.5%로 설정

2024년 1월 전 수산물 대상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2024년 1월 수출관세율을 5.5%로 설정하였다. HS코드 제3종 또는 제16종의 수산물, 수산가공품은 모두 포함된다.

국내 시장의 보호를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는 2023년 9월 21일 정부령 제1538호로 수출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달러와 루블화 환율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는 조치로, 루블화 약세로 인하여 수출 증가가 예상될 때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는 1달러가 95루블 이상이면 세율 7%, 90루블 이상 95루블 미만이면 5.5%, 85루블 이상 90루블 미만이면 4.5%, 80루블 이상 85루블 미만이면 4%의 관세를 부과한다. 80루블 미만이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환율은 과세 대상 달의 전전달 26일에서 전월 25일까지의 평균치로, 경제개발부가 세율을 결정한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3년 12월 28일자



러, 최대 어획량으로 베링해 명태 조업 종료

2024년 쿼터 증량 권고

러시아 서베링해의 2023년 조업 시즌이 57만 7천 톤이라는 사상 최고 어획량을 기록하며 조업이 종료되었다. 이는 작년 대비 26.6%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최고치로 설정된 61만 2,000톤 총허용어획량(TAC)의 94.3%를 차지한다.

한편, 러시아 어업 연구자들은 2024년 베링해 명태 TAC를 올해보다 24.1% 증가한 76만 톤으로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다.

명태 쿼터의 증가는 전러시아 수산해양연구소(VNIRO) 연구원들이 허용 어획량을 결정할 때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에서 최대지속가능어획량(이하, MSY) 원칙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MSY 원칙은 세대 수 형성에 있어 산란 자원의 역할이 상당히 과장되었다는 러시아 수산 연구 데이터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러연방수산청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원을 훼손하지 않고도 명태 어획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MSY 원칙은 러연방수산청이 지난해 11월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베링해에 새로운 어장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러시아 어민들이 미국에서 러시아 해역으로 회유하는 명태를 15만 톤을 더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베링해 명태 TAC 증가는 러시아산 명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유럽연합과 미국 시장이 폐쇄되고 생산 비용이 적어지는 상황에서 아시아 시장으로의 명태 수출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러시아 명태 생산업체들은 명태 생산량을

2023년 5만 톤에서 2027년까지 11만 5천 톤으로 늘려 상당량을 아시아에 공급할 계획이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이하, PCA)에 따르면 8월까지 명태 필렛, 민스, 연육의 중국 수출량은 1만 1,700톤에 달했으며, 연육과 민스의 수출 증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이뤄졌다.

아시아 시장으로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에 대한 금수 조치를 다른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PCA에 따르면 미국은 주로 러시아산 원료로 생산된 중국산 이중 냉동 명태 필렛을 2만에서 2만 5,000톤을 수입하였으나, 이제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PCA 회장은 "수입 금지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공급은 재분배될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비워진 물량은 알래스카산 명태로 대체될 것이며, 제3국 시장의 물량은 러시아산 또는 중국산 명태 필렛으로 대체될 것이다."

명태는 러시아의 주요 상업 자원으로, 러시아 전체 연간 어획량의 약 35%를 차지한다.

서부 베링해 수역은 오호츠크해에 이어 러시아 어민들에게 두 번째로 중요한 명태 어장이다.

올해 러시아의 전체 조업 수역에 대한 명태 어획 총허용어획량(TAC)은 오호츠크해의 89만 7,000톤을 포함해 205만 5,900톤으로 설정되었다.

12월 20일 현재 러시아의 전체 명태 어획량은 186만 톤으로 1년 전보다 8,900톤 증가했다고 러연방수산청은 밝혔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2월 27일자



러시아 트롤 어선, 어획량 세계 신기록 수립

2023년 9만 273톤 어획

1월 4일, 2023년에 9만 273톤을 어획하여 세계 어획량 신기록을 세운 트롤 어선 ‘피터 1세’호가 블라디보스토크항에 입항하였다. 명태어업협회(ADM) 회장이 기록 경신 선박의 선원들을 환영하는 엄숙한 행사에 참여하여 성공적 귀환을 축하하였다.

"이 행사는 러시아 전체 어업에 중요한 행사이다. 선박의 선령이 어업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 선원의 전문성과 협동, 잘 조정되고 관리되는 어업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라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장은 또한 선원들이 2024년 새해에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를 기원하였다.

‘피터 1세’호는 1993년 스페인에서 건조되었으며, 2017년에 현대화 작업을 거쳐 어분 생산 등 모든 장비가 최신 장비로 교체되었다. 현재 이 선박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수중 음향 시스템, 진공 원료 공급 시스템, 제품 포장 및 하역을 위한 자동

시스템 등이 장착되어 있다.

2023년 세계 기록은 ‘피터 1세’호의 첫 번째 기록이 아니다. 2019년에 이 선박은 8만 7,297톤을 생산했는데, 이는 같은 유형의 단일 선박이 한 해 동안 생산한 최고 기록이었다. 따라서 2023년에 이 선박의 선원들은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1월 5일자

러시아 극동 수역 명태 어획 시작

110일간의 조업기간 60% 이상의 명태 어획

1월 1일, 러시아 극동 오희츠크해 수역에서 명태 어획이 시작된다. A시즌에는 약 200척의 어선이 조업 예정이다.

오희츠크해 명태 어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가장 많은 조업 수역이다. 110일간의 조업기간 동안 극동 수역 어장에서는 연간 명태 어획량의 60% 이상이 어획된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1월 1일자



美 정부, 타국서 가공한 러 수산물도 수입 금지

22일 이전 주문 제품은 60일 유예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으로 12월 22일, 러시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러시아 외 타국에서 가공한 제품까지 확대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EO)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백악관에서 발표된 성명에 따르면, 번호 미지정의 새 행정명령은 이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024호와 14068호를 기반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 당국이 러시아 군수의 자금원을 제재하고 타국에서 가공된 후 원산지가 변경된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제재하는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

해당 행정명령에서 수산물을 주제로 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마찬가지로, 행정명령 14068호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품들이 제3국에서 변형되더라도, 미국의 담당 부서 및 기관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었거나 러시아 국적 선박에 의하여 어획된 특정 제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한다. 재무부는 이 금지의 대상이 될 특정 유형 수산물을 식별하는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명령이 발표되기 전에 주문한 제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기까지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측에 따르면, 2023년 12월 22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 따라 발생한 수산물 제품의 미국 수입은 2024년 2월 21일 자정 1분까지 승인된다.

알래스카의 주요 수산물 가공업체 임원들은 다른 나라에서 재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는 허점을 막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

령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수산물 업계의 모든 사람이 이 조치에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뉴욕주 수산물 유통업체 아틱 피셔리스(Arctic Fisheries)社 사장은 이번 조치 발표 후 링크드인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항만 노동자, 창고 노동자, 제조업체, 트럭 운전자, 유통업체, 식당, 소비자 등 전체 산업과 그 연관성을 희생시키면서 소수의 알래스카 생산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코톡(Kotok)社는 중국에서 대구, 명태, 해덕, 새우, 틸라피아를 공급받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가 점점 더 강해지는 자립적인 러시아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결정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산 수입 금지는 러시아수역 또는 러시아수역 밖에서 러시아 국적 선박이 어획한 연어, 명태, 대구, 게 제품에 적용되며, 이 수산물이 다른 나라에서 재가공되어 변형된 경우도 포함한다.

코톡은 “업계는 이제 어디서 물자와 수산물을 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자체 소비 권장 사항조차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알래스카 의원들과 수산물 업계 임원들은 특히 러시아산 명태가 중국에서 피쉬스틱 등으로 재가공되어 미국 시장에 계속 유입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들은 특히 이 허점을 막는 것이 명태뿐만 아니라 연어 및 기타 어종의 수산물 가격이 2023년 동안



기록적인 최저치를 기록한 데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개정안이 미국의 수산물 접근을 더욱 제한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수산물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코톡은 지적하였다.

코톡 측은 자신의 회사에 대해 "개정안 발표 후 몇 분 만에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원산지의 비슷한 어종도 가격이 오를 것이다. 우리만 가격을 인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인상하였다."

코톡 측은 중국에서 러시아산 생선을 가공하는 공장은 "놀라울 정도로 고품질의 생선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생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청결, 위생, 식품 안전 및 생선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최고 기준

을 준수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공장에서 생산되는 많은 제품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시장을 지배하는 가치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수입하는 수산물 대부분은 이런 종류인데, 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라고 코톡 측은 말하였다.

코톡은 "경제적으로 볼 때 이는 러시아 전쟁 중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들의 제품은 여전히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수정안은 푸틴의 재정에 1달러의 감소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2월 22일자, IntraFish, 2023년 12월 27일자

러, 전자조업일지 전환 공공 서비스와 Gonets 시스템 간 통합

12월부터 선단은 전자 조업 일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센터(이하, CFMC)는 선박 일일 보고서 전송을 위한 전자 조업 일지 사용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알렸다.

전자 조업 일지로 전환하는 동안 소프트웨어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모든 수역에서 어선에 프로그램 패키지를 설치한 비율은 100%에 가깝다. 조업 일지를 전자 형식으로 유지하는 법률은 지난 12월 1일에 발표되었다. 현재까지 전자 조업일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은 5.9%이며 해당 선박 대부분은 올해 조업계획이 없는 선박이다.

CFMC는 어민과 회의를 개최하여 새 조건의 운영 절차를 설명하였다. 어민들의 주요 질문은 전

자조업일지의 기능과 전자 허가증에 관한 것이었다.

12월 20일 회의를 통해 어업 기업들은 모든 관심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러연방 수산청의 공공 서비스 실행 시스템과 전자조업일지 간의 통합 서비스를 통하여 선박은 선상에서 전자 허가 및 허가 변경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현재 CFMC와 Gonets 시스템 전문가는 러시아 고유 위성 터미널 Gonets을 활용하여 선박의 일일 보고서 전송을 테스트하고 있다.

Gonets 위성 터미널과 전자조업일지 시스템 간의 통합을 통해 일일보고서를 선박에서 육상으로, 전자 허가증을 육상에서 선박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러한 테스트는 다양한 수역의 여러 선박이 참여하고 있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2월 28일자



美 명태 생산자, 2024년 낙관

새로운 행정 명령으로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맞이

미국 명태 생산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재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을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규제 허점을 막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12월 행정 명령의 영향을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

미국 PBO 명태 필렛 블록 가격은 발표 이후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2022년 기록인 톤당 5,000달러를 훨씬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알래스카 명태 PBO 가격은 여전히 4,000달러 이하에 머물러 있다고 다수의 미국 명태 업체는 밝혔다.

알래스카 의원들과 수산물 업계 임원들은 특히 중국에서 피쉬 스틱 및 기타 제품으로 재가공되어 미국 시장에 판매되는 러시아산 명태와 경쟁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허점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찬사를 보냈다.

2023년에 수산물 생산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낮은 명태 가격에 맞서야 했으며, 미국 생산자들은 러시아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미국의 행정 명령은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거쳐 EU로 들어오는 러시아산 생선에 대해 이전에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들에게 불확실성은 러시아가 이전에 중국으로 향하던 명태를 어디로 보내 재가공하여 미국으로 판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PCA)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중국에서 주로 러시아산 원료로 생산된 2만에서 2만 5천 톤의 이중 냉동 명태 필렛을 수입하였지만,

이제 수입이 금지될 예정이다.

미국 명태 생산자는 올해 2023년과 같은 양의 명태를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북태평양수산물관리위원회(NPFMC)는 12월에 동부 베링해 알래스카 명태 어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130만 톤으로 승인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어획량은 5% 증가한 205만 톤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주요 알래스카 명태 연육 생산업체는 미국의 재처리 허점 폐쇄로 인해 명태의 생산과 무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러시아가 일본과 같은 주요 시장에 저렴한 제품을 공급하여 미국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면서 미국산 연육 가격은 이미 2023년에 하락하였다. 러시아와 미국은 모두 일본의 주요 연육 공급국이다.

2023년 11월 어너 배리 컨설팅(Urner Barry Consulting)이 알래스카 명태 협회(GAPP)를 위해 작성한 명태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일본의 러시아 명태 수입량이 지난해에 비해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명태 생산자들은 2023년 5만 톤에서 2027년까지 11만 5천 톤으로 명태 연육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며, 이 중 상당량을 아시아에 공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인해 아시아 시장으로의 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1월 4일자



오호츠크해 명태 어업, 5년간 MSC 인증

2028년 12월까지 인증 연장

명태어업협회는 오호츠크해의 명태 어업의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표준 준수에 대한 재인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인증을 받은 어업은 5년마다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호츠크해의 명태 트롤어업은 명태 어업 협회 회원사들이 수행하는 어업으로, 지속가능성과 MSC 표준 준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2028년 12월까지 향후 5년 동안 MSC 인증이 연장되었다.

심사는 USCL 인증 회사의 전문가 그룹이 수행하였다. 이 그룹은 오호츠크해의 명태 자원 현황, 과학 읍서버의 어업 모니터링 프로그램 결과, 명태 트롤어업에서 어구와 해양 포유류 및 조류의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 과학 연구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였다. 자원 현황과 어업 규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협회는 어업 및 통신 모니터링 시스템 센터, 과학원, 어선 선장들과 함께 감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준비된 자료와 어업에 대한 이전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심사원들은 단 한 가지 조건도 없이 이 어업에 대해 인증을 추천하였다. 평가된 모든 지표에서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인증 회사는 오호츠크해의 명태 트롤어업이 지속 가능하고 잘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명태협회장은 말하였다.

협회는 2022년 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증 회사가 러시아 어부의 MSC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협회는 2013년 오호츠크해 명태 트롤어업에 대한 MSC 인증을 처음 획득한 후 2018년 무사히 갱신한 바 있으며, 서베링해 해역, 페트로파블로프스크-코만도르스크 하위 구역 및 북쿠릴 해역의 명태 어업도 성공적으로 인증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2월 27일자





美, 명태 연육 이미지 변화 고민 러시아 명태 연육 생산량 급증과 수요 감소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알래스카 명태 연육 가격은 9월에 약 50% 폭락하였다. 분석가들은 러시아 연육 생산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나타난 시장의 높은 경쟁이라고 생각한다.

전러시아수산협회는 러시아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명태 생산국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주요 경쟁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오랫동안 미국은 명태 연육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2021년 러시아는 자체 생산을 시작하였다. 러시아 시코탄섬의 주요 연육 공장 외 절반 이상의 연육 제품은 해상 선박에서 생산된다. 2022년 미국은 16만 1,000톤의 명태 연육을 생산했지만, 러시아는 2만톤을 생산하였다.

동시에 올해 11월까지 러시아의 명태 연육 생산량은 5만 톤에 달하였다. FAO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연말까지 생산량이 18만 5,000톤으로 예상한다.

동시에 분석가들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합리적인 구매를 향한 소비자 행동의 변화로 인해 수요가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9월에 열린 알래스카 명태 생산자 회의 참석자들은 가격 하락 원인에 계절 변화와 마케팅 부진을 추가 원인으로 언

급하였다.

북미와 유럽 모두에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이다. 연육은 길거리 음식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야외에 나가지 않았다.

또한 일부 미국 판매 전문가에 따르면 연육은 "모조 계살"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유럽과 북미의 젊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초밥의 재료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전 세계 생선 연육 생산량은 85만 톤이다. 그랜드뷰 리서치(Grand View Research)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연육 시장 규모는 37억 8,000만 달러로, 생산량 기준으로는 인공 양식 어류를 포함한 열대 또는 난류 어종의 연육이 70% 정도의 점유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동시에 냉수에서 잡힌 흰살 생선, 특히 명태 연육은 세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 출처: Fishnet, 2023년 12월 29일자



美, 베링해 포함 해양영토 영유권 주장 확대

러 동부 해안 베링해 포함

미국 연방정부는 알래스카 연안의 베링해와 북극해 주변의 광대한 구역을 포함하여 새롭게 해양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알래스카 지역 언론 The Alaska Beacon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12월 19일 미국의 EEZ 근교 해저를 조사하는 장기 지도 작성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미국 연안에서 98만 7,700km² 규모의 '확장된 대륙붕(이하, ECS, extended continental shelf)'에 대한 영유권을 추가로 주장할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는 "대륙붕은 한 나라의 바다 및 육지 영토의 연장선이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ECS 및 해저 자원들과 주요 서식지를 보존하고 관리할, 국제법에 근거한 권리가 있다."라고 밝혔다.

The Alaska Beacon에 따르면, 특정한 국가의 영

토가 자국의 ECS에 연결되어 있다면, EEZ 외부의 해양 구역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될 새로운 지역의 절반 이상이 북극해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다른 갈래는 러시아 동부 해안의 베링해를 포함하고 있다.

확장될 국경에 포함될 다른 구역은 미국 동부 연안, 태평양 마리아나제도 주변, 멕시코만 및 미국 서부 연안 등에 분포하여 있다.

그러나 미국에는 EU를 포함한 168개국이 40년간 준수한 유엔해양법협약(이하, UNCLOS)을 비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새 영역 선포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3년 12월 29일자

日, 쿠릴열도 어업 재개 위해

일본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에 따라 불가

일본은 쿠릴열도 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협정을 갱신할 계획이다. 일본 외무성은 가능한 한 빨리 해양생물자원 어획을 재개하기 위해 러시아와 협상하고 있다.

이는 일본 외무성 장관이 언급하였다. 러시아와 일본은 매년 러시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일본 어민의 어획 할당량에 대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해양 생물 자원 어업 분야 협력에 관한 러일 간의 협정은 1998년에 체결되었다.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어업 시행과 관련하여 러시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은 없다. 일본 정부는 협정에 기초하여 어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올해 1월 일본 정부의 반러시아 정책을 이유로 쿠릴열도 남방 수역의 해양 생물 자원 어업에 관한 정부 간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 출처: EastRussia, 2023년 12월 26일자



러시아 2023년 명태 수출 증가

지난해 대비 수출량 13% 증가 예상

올해 러시아 명태 수출의 주요 추세는 필렛 형태에서 냉동 생선과 연육 형태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유럽에서 필렛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기업들은 생산 체인을 재구성해야 했다.

그 결과 H&G 명태 생산량은 8%, 미 절단 명태 생산량은 53% 증가했으며, 연육 생산량도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하였다. 이것이 명태의 총수출량이 증가한 이유로, 75만 2천 톤에 도달하여 2022년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하였다.

2023년 말 현재의 역학 관계를 고려하면 총수출량은 88만 톤, 1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물리적인 수치로는 작년보다 13% 증가하지만, 금액으로는 5% 감소한 수치이다.

명태협회장은 생산 구조의 변화 외에도 어획량 증가가 수출 증가에 이바지했다고 언급하였다. 12월 11일까지 러시아 기업은 작년 전체 수치와 거의 같

은 190만 톤을 어획하였으며, 연말까지 198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지난해 대비 4% 증가).

협회장은 연말이 되면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에 국내 소비량이 30% 증가하여 최대 24만 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며 있으며, 이 수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공급 방향과 제품 범위가 계속 바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주된 이유는 EU 수출 관세 때문이다.

올해 11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명태 제품을 EU 국가에 대한 수산물 무관세 수입 할당량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024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명태 필렛과 러시아산 명태로 제3국에서 생산한 2차 냉동 필렛을 EU로 수입할 경우 13.7%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출처: Fishnews, 2023년 12월 28일자





日 2023년 콩치 어획량 2만 4,433톤 전년 대비 36% 증가

일본 전국 콩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 9일 발표한 2023년 일본 콩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2만 4,433톤이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22년 어획량(1만 7,910톤)보다는 많지만, 역대 3번째로 적은 어획량이다. 조합 측은 “역대 최저치를 벗어났으나, 여전히 적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며, 어획량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10kg당 단가는 2022년(5,758엔) 대비 28% 하락한 4,141엔이다. 총 어획 금액은 101억 1,702만 엔으로, 전년 대비 2% 하락하였다.

지역별로는 홋카이도에 양륙된 양이 전년 대비 38% 증가한 1만 4,908톤, 단가는 26% 하락한 3,863엔이다. 혼슈(本州, 일본을 구성하는 4개 섬 중 가장 큰 섬)에 양륙된 양은 34% 증가한 9,525톤, 단가는 31% 하락한 4,575엔이다.

어항(漁港)별로는 홋카이도 하나사키항에 1만 2,944톤(전년 대비 35% 증가), 이와테현 오후나토항 3,877톤(27% 증가), 미야기현 게센누마항 3,086톤(36% 증가)을 기록하였다.

조합 측은 2023년 어기의 특징으로 일본 근해에서의 어획량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합 측은 또한 소형선은 항행 능력에 한계가 있어 공해 어장에서 조업할 수 없으나, 2023년은 산리쿠 연안이나 오토츠크해에서의 내유가 증가하여 소형선도 조업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일본 콩치 붕수망 어획량은 1981~2014년 동안 13만~34만 톤 수준이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19~2022년 동안 연이어 연간 어획량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1월 11일자



(사진: 일본 콩치 연간 어획량 추이 그래프)



노르웨이 대구 양식업체, 중국 진출

안정적인 공급과 우수한 품질 제공

노르웨이의 대구 양식업체 Norcod는 중국 수입업체 Hi-Chain(상하이 허청 식품 회사)과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에서 대구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하이체인은 중국 수산물 업계에서 잘 알려진 제조 공급업체이다. 주로 연어에 주력하지만, 다른 수산물도 공급한다.

12월 14일 열린 출시 행사에서, 중국에서는 '눈대구'로 알려진 노르웨이산 양식 대구가 중국 시장에 처음으로 공식 등장하였다. 두 회사는 중국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이 제품은 "질 좋고 저렴한 횡감용 재료"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시장에 진출한 대구는 주로 자연산 냉동

제품이며, 눈 대구는 더 신선하고 관리가 쉬우며 달콤하고 순수하다고 상하이 허청 식품 유한회사의 총 책임자는 말하였다.

노르코드는 연중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현재 최대 생산 능력은 1만 7,250톤이다. 현재 양식 대구가 바다에서 중국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노르코드의 판매 및 유통 파트너인 시레나(Sirena) 그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레나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 이 제품의 발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2월 21일자

노르웨이, 고등어와 청어 쿼터 할당

잠정 고등어 쿼터 10만 톤 일방적 설정

노르웨이는 2024년 북동 대서양에서 고등어와 청어에 대한 "잠정" 쿼터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전에 노르웨이는 EU, 아이슬란드, 페로, 페로, 영국, 러시아 및 그린란드와 함께 이종에 대한 한도 할당에 동의하지 못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잠정" 고등어 쿼터가 10만 톤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노르웨이 정부는 지금까지 2024년 총허용 어획량의 65.6%를 청어에 할당하기로 하였다.

북동 대서양 연안 국가들은 지난 10월 공동 조

업 어종에 대한 총쿼터 규모에 협의하였다. 그러나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개별 국가 간의 한도 분배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였다.

노르웨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따르면, 1월에도 국가 간 협상이 계속될 예정이지만 그때까지는 "잠정" 쿼터 내에서 어획할 계획이라고 한다. 관제자는 최종 쿼터는 주여기가 시작되기 전에 할당되어 어민들에게 분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t, 2023년 12월 28일자



러, 생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 제안

우대 대출, 관세 특혜, 판매 지원

러시아 지방정부는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연방 계획 제안을 제출하고 있다. 톰스크주는 극동 지역에서 어획물을 가공 및 운송에 대한 대출 혜택을 제출하였다. 러시아 대통령은 정부에 국내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개발하라고 지시하여, 현재 연방 차원의 로드맵이 준비되고 있다.

톰스크주는 기업에 우대 대출을 제공하여 수산물의 심층 가공 촉진을 제안하였다.

"우대 대출은 생선 가공업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도매상으로부터 대량의 원재료를 고정된 가격으로 미리 구

입하여 보관했다가 점차적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지역 어업과 책임자는 말하였다.

또한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극동 지역의 수산물 철도 운송에 대한 특혜 관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명태에 대한 이러한 지원 조치가 제공되고 있으며 곱사연어도 포함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학교 급식을 포함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생산자의 수산물 판매 조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12월 30일자

러시아 연방보안국 동북극 지부, 어민과 만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

지난 12월 21일, 러시아 연방보안국 동북극 지부와 어업 기업 및 비영리 협회 간 협의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명태어업 협회장이 참석하였다. 회의 과정에서 연방보안국 동북극 지부의 지도부는 2023년 산업법 이행 감시 결과와 향후 법규 위반을 방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고 해양생물자원 보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 업계 및 협회의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였다.

지난 6월에 개최된 실무회의 결과에 따라 협회는 러시아 연방 관할 수역 내 의심 선박의 존재를

국경수비대에 통보하고 IUU 어업에 사용된 어구 회수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협회장은 해양 생물 자원의 보존은 어업의 핵심 과제이며 어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보장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보안국 동북극 지부와는 협력이 가장 주요한 부분이며, 국경수비대와는 협력 강화가 러시아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해양생태계 보존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협회장은 말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12월 26일자



인트라피시誌, 2023년 어업계 주요 기사 선정

힘든 한해였다고만 말하기엔 부족한 한해

2023년은 전 세계 수산업계의 많은 사람에게 갈등과 투쟁의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세계 수산물 시장의 붕괴, 소비자 수요 약세, 인플레이션, 운영 비용 급증 등 2023년은 이러한 사건과 그 밖의 많은 일들로 기억될 것이다.

수산물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에게 힘든 한 해였다고만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족한 표현이다. 하지만 이제 페이지를 넘겨 새해와 더 나은 시간을 맞이해야 할 때이다.

2023년의 가장 큰 뉴스 몇 가지를 정리해 본다.

1. 지난해 가장 인기 있었던 기사는 전 세계 수산물 업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경영진을 매년 선정하는 내용이었다.

캐나다의 거대 수산물 기업인 Cooke의 글렌 쿡, 세계 최대 연어 양식업체인 Mowi의 CEO 이반 빈드하임 등이 이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2. 수산물 업계 최고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급여는 어떤 수준일까?

수산업 최고 경영진은 2022년에 다시 한번 넉넉한 연봉을 받았으며, 일부는 보너스 형태로 상당한 추가 보수를 받았다. 보너스는 수만 달러에서 거의 190만 달러까지 다양했다.

3. 2023년 알래스카 연어 시즌은 낮은 가격에 대한 시위로 얼룩졌다.

'연어 쓰나미로 가격 폭락'에서 어민과 가공업체가 직면한 어려움을 분석한 바 있다.

4. 연어 양식업은 큰 사업이며, 연어 양식 기업에 대한 정보는 항상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5. 육상 연어 양식업체는 마이애미 양식 시설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육상 연어 산업과 그에 따른 많은 뉴스가 있었다.

독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 연어 양식 프로젝트에 관한 독점 기사를 읽기 위해 몰려들었다.

6. 작년은 인수합병에 있어서 또 하나의 큰 해였다. 올해의 가장 큰 거래 중 하나는 글렌 쿡의 거대한 수산물 제국과 관련된 것이었다.

3월에 열린 보스턴 수산물 박람회에서 Cooke은 미국의 대표적인 수산물 유통업체인 Slade Gorton을 인수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인수를 통해 Cooke은 800개 이상의 프리미엄 수산물 제품 라인과 수백 개의 북미 주요 식품 서비스 및 소매 고객과 오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 Slade Gorton의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7. 2023년에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2023년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극도로 약화하면서 지속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월간 소매 판매량이 연중 내내 감소하면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8. 명태 대기업인 아메리칸 시푸드의 CEO는 회사에 약간의 허리띠 조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회사 매각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 미국 알래스카의 명태 업체 American Seafoods가 현금 위기에 직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세계 명태 시장의 약세가 매각을 앞둔 회사의 재정 압박을 가하였다.

9. 전 세계 새우 공급망 전반에 걸쳐 힘든 한 해였

다. 시장 붕괴, 과잉 생산 및 높은 재고로 인해 2023년 한해간 힘들었고 그 여파는 지속되고 있다.

10. 아이슬란드인은 노르웨이 연어 양식 대기업과 가두리어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노르웨이 연어 양식업자들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토지 임대료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아이슬란드에서 연어 양식이 성공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 출처: IntraFish, 2023년 12월 19일자

모스크바 생선 가공량 5년간 83% 증가

2만 5천톤에서 6만 톤으로 증가

모스크바 지역의 생선 가공량이 5년 만에 83% 증가하였으며 그 물량은 6만 톤 이상에 달하였다. 2019년 동기간의 처리량은 2만 5,500톤에 달하였다.

생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제품 범주는 조리 생선 제품, 토마토소스 생선 통조림, 냉동 생선

필렛이다.

러연방 농업부에 따르면 2023년에 모스크바 지역에서 8,000톤의 수산물, 갑각류나 조개류가 수출되었다. 주요 공급 대상은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조지아, 몰도바, 아르메니아이다.

* 출처: Fishery.ru, 2023년 12월 21일자



바다3

이 도 운

썩지 않기 위해
제 몸에 소금을 뿌리고
움직이는 바다를 보아라
잠들어 죽지 않기 위해
제 머리를 바위에 부딪히고
출렁이는 바다를 보아라
그런 자만이 마침내
뜨거운 해를 낳는다





12월 오징어 국내 동향

원양산 반입감소로 공급 줄며, 소비자가격 상승

□ **생산동향**(12월 오징어 생산량 595톤으로, 전월 대비 2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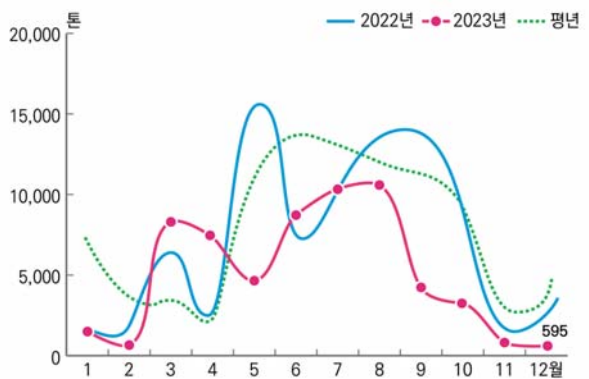
12월 오징어 생산량은 595톤으로 원양산 반입이 줄면서 전월 대비 28.6% 감소했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80.6%, 86.3% 적었다.

원양산 반입량은 전월 대비 76.3% 감소한 176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84.8%, 83.3% 줄었다.

연근해산 생산량은 419톤으로 전월 대비 소량 증가했으나, 어획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 및 평년보다는 여전히 적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해안지역의 위판량은 384톤으로 전체 위판량의 77.4%를 차지했으며, 남해안 지역의 위판량은 106톤으로 전월 대비 위판 비중이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죽변수협(80톤), 포항수협(57톤), 삼척수협(43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9.9% 감소한 6만 537톤이었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33.1%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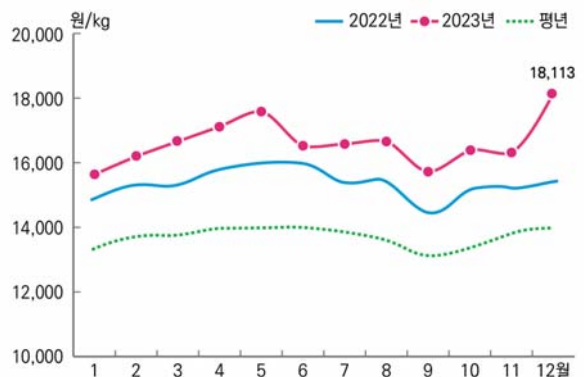


□ **가격동향**(12월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11% 상승)

12월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6,741원으로, 전월에 비해 연근해산 생산이 소량 늘면서 22.6% 하락했으나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는 각각 30.8%, 6.9% 높았다.

오징어(신선냉장) 소비자가격은 kg당 25,933원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8%, 22.5% 높게 형성되었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8,113원으로 정부 비축물량의 방출에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 10.9% 상승했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7.1%, 29.0%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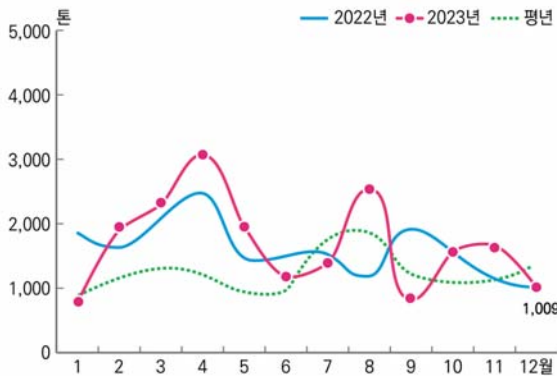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12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2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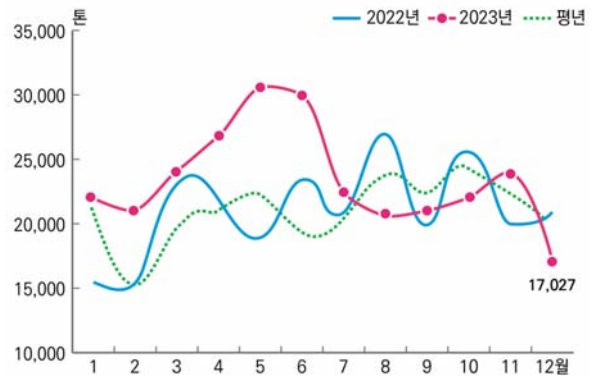
12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38.8% 감소한 1,009톤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평년보다는 23.8% 적었다.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미국(704톤), 중국(77톤), 일본(54톤) 순으로 많았다. 2023년 수출량은 2만 194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1%, 36.8% 증가하였다.

12월 오징어 수입량은 전월 대비 28.4% 감소한 1만 7,027톤으로,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8.5%, 15.8% 적었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9,894톤), 페루(5,125톤)였으며, 페루산은 기타 및 냉동, 중국산은 냉동 및 조미오징어 비중이 높았다. 2023년 수입량은 28만 718톤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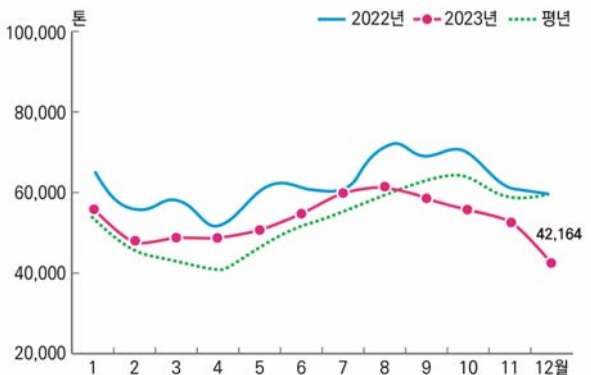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2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18.7% 감소)

12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4만 2,164톤으로 전월 대비 18.7% 감소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0.0%, 28.7% 적었다.

연근해산 재고량은 1만 877톤으로 전월 대비 14.2% 감소했으며, 원양산 재고량은 3만 1,287톤으로 20.2%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1월호



12월 명태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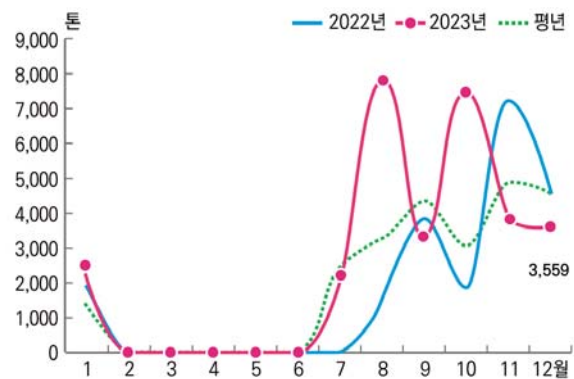
원양명태 반입량 감소, 소비자가격 소폭 하락

□ 생산동향(12월 원양명태 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3,559톤)

12월 원양명태 반입량은 3,559톤으로 전월보다 8.2% 감소했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22.6%, 20.2% 적었다.

2023년 반입량은 3만 745톤으로 '리-우' 사태로 조업 시작이 늦어져 어획량이 적었던 전년에 비해 47.7%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26.4%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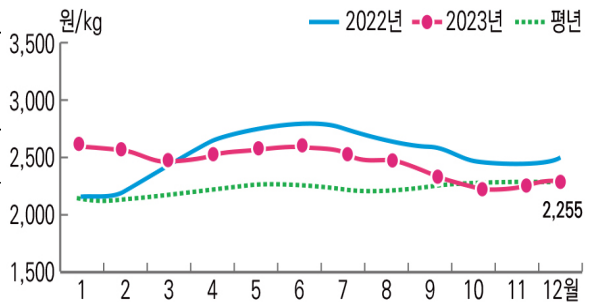
2023년 원양명태 어획량은 전년(21,630톤)에 비해 31.8% 많은 2만 8,499톤이었으며, 원양명태 쿼터 소진율은 99.9%로 전년(75.9%)보다 높았다.



□ 가격동향(12월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kg당 5,282원)

12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255원으로 10월부터 보합세가 이어졌으며, 전년 동월보다는 9.9%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kg당 5,282원이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3.6% 낮았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32.1% 높았다.



□ 수출입동향(12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17% 감소한 3만 299톤)

12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 대비 45.9% 감소한 3,581톤이었음.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43.4%, 58.5%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중국으로 냉동연육(2,711톤), 베트남으로 냉동명태(183톤), 일본으로 냉동연육(75톤) 등이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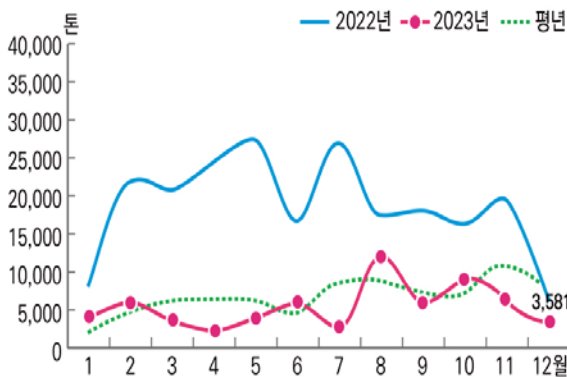
2023년 명태 수출량은 6만 4,655톤으로 對 중국 재수출 물량 수출이 감소하여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71.2%, 22.5% 적었다.

명태 수입량은 3만 299톤으로 전월보다 17.3% 감소했으며,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18.4%, 26.7%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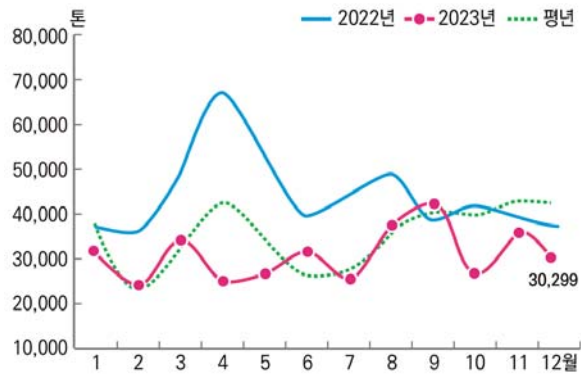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는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12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국산 냉동연육(8,348톤), 러시아산 냉동 필렛(4,160톤), 러시아산 냉동연육(3,810톤) 등의 순이었다.

2023년 명태 수입량은 37만 1,476톤으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재수출용 명태 물량이 줄어 전년과 평년에 비해 각각 30.0%, 12.2% 적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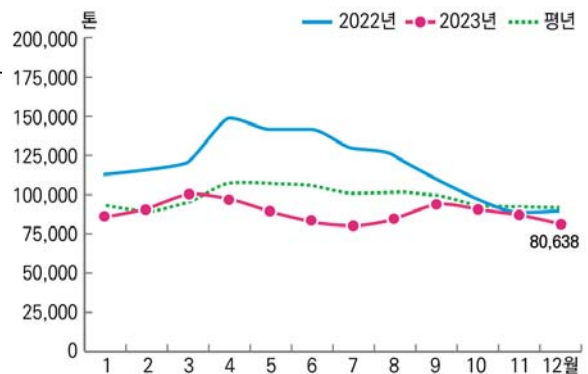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12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12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638톤으로 러시아 명태 B시즌이 종료되며 원양명태 반입과 수입이 줄어들어 전월 대비 7.5% 감소하였다.

전년 및 평년보다도 각각 9.8%, 11.4% 적었다.



* 출처: KMI 수산물측 1월호



WCPFC 제20차 총회, 개정된 보존관리조치 합의

우리나라 어획한도 향상

해양수산부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쿡 제도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제20차 연례회의'에서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한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4년에 우리 수역을 포함한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를 기존 어획한도(748톤·13,942톤)보다 각각 135톤, 1,394톤 더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는 관리어종에 대해 2~3년 주기의 정기적인 자원평가를 진행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산출하고, 자원상태에 따라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별 할당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우

리나라 대표단은 최근 수년간 다랑어 어종의 어획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 보존관리조치 개정 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요 회원국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개정된 보존관리조치가 합의되면서 어획한도 향상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 연근해 수역 내 참다랑어 회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이번에 개정된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가 어획량 증대에 대한 어업인들의 갈망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치-꽂치업계, 어업용 미끼 꽂치 수급 협력

1. 16.(화) 업무협약 체결, 안정적인 미끼용 꽂치 수급 확보

해양수산부는 1월 16일(화) 제주도청에서 제주 갈치어선주와 원양꽂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사)제주도어선주협의회, (특)한국원양산업협회(꽂치붕수망어업위원회), 갈치어업 미끼 꽂치 유통관리 제주도 수협(제주시, 한림,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수협)

그동안 제주갈치업계는 갈치조업시 꽂치 외에 대체 가능한 미끼가 없어 수입산 꽂치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급등한 수입 물가 및 자원 감소로 미끼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산 꽂치에 부과하고 있는 조정관세를 인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정부는 2023년 5월 「조정관세규정」을 개정

*하여 갈치조업용 미끼 꽂치에 한해 조정관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미끼 꽂치의 식용 유통 등 부정유통 방지와 꽂치업계의 판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으로써 갈치 및 꽂치 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 기존 24% 조정관세 → 개정 10% 기본관세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제주갈치업계가 전년도 미끼 꽂치 사용량의 20%를 국내 원양산 꽂치로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주갈치업계는 품질이 좋은 국내 원양산 미끼 꽂치의 공급망을 확보하고, 원양꽂치업계는 안정적인 꽂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선사가 직접 조업 할당 소진량 확인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 소진량 실시간 확인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해양수산부는 IUU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조업정보관리시스템(kfims.mof.go.kr)'의 기능을 개선하여 올해 1월 2일(화)부터 시행한다.

조업정보관리시스템은 해외 연안국 입어허가 및 조업 할당량 등 조업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원양선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가 연안국 입어허가 및 해외 어획물 전재 결과 등을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왔으나, 오류 발생 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조업정보관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2024년부터는 원양선사가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서 연안국 입어허가 및 전재 결과 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업 할당 소진량의 실시간 확인과 최근 30일간의 선박 항적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조업 할당량 초과 등의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국제수산물관리기구의 보존 관리조치 제·개정 사항을 공지하여 원양선사들이 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해당 조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원양선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로 조업정보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자료를 입력하면 된다. 아이디 부여 등 궁금한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조업감시센터(051-410-1410)로 문의하면 된다.

대중성 어종 최대 50% 할인 지원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덜기 위해 2월 8일(목)까지 할인행사 진행

해양수산부는 새해를 맞아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월 11일(목)부터 2월 8일(목)까지 29일 동안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들이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국내산 수산물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중성 어종인 명태, 고등어, 오징어, 참조기, 마른 멸치와 설 성수품인 참돔, 김, 문어 등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18개 마트(1,715개 점포)와 27개 온라인몰이 참여하며, 참여업체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윤명길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상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형균 이사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업무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조성주 과장	기획, 홍보 원양뉴스, 생산통계
		김민재 주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총괄 무역제도, 수출통계 노사, 선원
		김영수 과장	
		최은혁 주임	
	총무부	공길웅 과장	총무, 자금 서무관리, 차량운영 총무 지원
		조성환 과장	
		이인수 사원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최봉준 과장	국제협력 참치선망 참치연승
		백상진 주임	
		박찬준 사원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총괄 오징어, 기타트롤 북양, 공치
		최상진 주임	
		이승환 사원	
부산지부	부산지부	이성재 이사	총괄 확인업무(수출, 반입)
		김현애 과장	
공인계량소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차량계량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해외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	이상목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이석우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예산, 인사, 명예수산물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해외투자교육 통계, OFIS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해외수산물유통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국제(수산)기구
		김수민 전문관	044-868-7863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명예해양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원양산업 제1164호	발행	2023년 12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출산A빌딩)
	발행인 편집인	윤명길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현명한 주부는 원양산 생선을 좋아해~

【원양산과 수입산 구별 요령】 원양산은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 또는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하므로 '원양산' 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사례 : 원양산 또는 원양산(대서양)>

통조림용 참치조림 장면

원양생선은 우리나라 어선이 잡는 즉시 선상에서 위생적으로 냉동처리하기 때문에 수입수산물과는 달리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이 적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참 치 회

DHA, EPA, 셀레늄이 풍부



참치통조림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



오징어

피로회복 성분,
타우린 다량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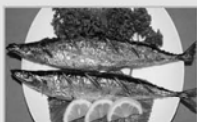
명 태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



조기류(민어과)

제수용 생선으로 제격



공 치

불포화지방산 다량 함유

원양산 생선을 수입산과 동격 취급 마세요!



◎ 원양산 생선이 수입산보다 왜 좋을까?

01

내국물품 (우리 어선이 잡은 생선)

원양산은 우리나라 어선이 외국 원양 수역이나 해외 공해상에서 잡아 직접 국내로 들어오는 생선이기 때문에 연근해산과 마찬가지로 내국 물품에 해당한다. 반면 수입산은 외국물품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02

오염우려 없는 친환경 생선

원양산은 대부분 청정해역이나 오염이 되지 않은 대양에서 안전한 위생 기준(HACCP)에 의해 생산되어 식품안전성이 수입산과 달리 뛰어납니다.



03

선상급랭 시설을 통한 우수한 신선도 관리

우리나라 원양어선들은 선상급랭 시설이 매우 우수해 어획 즉시 선상에서 곧바로 급랭하여 국내로 반입되기 때문에 수입산에 비해 신선도가 훨씬 뛰어납니다.

